

미국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매력 홍보

시, 로스앤젤레스서 글로벌 관광 홍보 활동 전개... 야간관광 특화도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전주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밝이 더 아름다운 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글로벌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의 인지도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위한 관광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미주 중앙일보, 미국 현지 인바운드 여행사(삼호관광), ADVUE(애드뷰), KOREAN AMERICAN CENTER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와 협약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연계된 야간관광

상품개발 및 판매 △미주 중앙일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추진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구축 및 전주시 야간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한 광고매체 발굴 △재외동포 나이트 프렌즈 육성 등 전주시 야간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중 해외 홍보 마케팅 예산을 활용해 전주를 1박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연계 상품개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한국관광공사 LA지

사를 방문해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전주 야간관광에 대한 홍보와 협력 방안과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현재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DJ 클럽 파티인 'Club The 8'과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 조선시대 야간연회를 재연한 '풍패지관 야간연회'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 사업을 통해 낮과 다른 전주의 밤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팔복예

술공장 일원에서는 전주 야간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Club The 8'이 개최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미국 시장의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잠재 관광객의 전주 방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전주 야간관광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전주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관광시장에서 전주의 야간관광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마케팅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페스타서 만나는 '쿠키런'

시, 인기 게임 IP인 '쿠키런' 과 콜라보 행사 상설 운영

오는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주시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에서 인기 게임 IP인 '쿠키런' 속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는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페스타 2024' 행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전주의 특색있는 로컬 디저트 판매업자 축제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달콤스토어'와 연계해 '쿠키런'과의 콜라보레이션 행사를 상설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맛의 고장 전주의 디저트를 맛보러 온 쿠키런'을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행사장인 전주종합경기장에는 전주 한정으로 기획된 한복을 입은 '용감한 쿠키' 대형 에어조형물(6m)이 설치돼 귀여운 쿠키 캐릭터 포토존을 제공하고, 전주의 달콤한 디저트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주페스타 2024의 달콤스토어 상품 구매 시 쿠키런 굿즈 제공 이벤트와 더불어 매주 1회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쿠키런 인형탈 그리팅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여기에 오는 10월 3일 전주페스타 2024 오프닝축제(개막식)에서 펼쳐지는 드론쇼에서도 약과와 한



과를 먹는 쿠키런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남문 광장에도 '대형 용감한 쿠키' 에어조형물(7m) 포토존이 별도로 설치돼 깊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페스타를 알리게 된다.

시는 청소년과 MZ 세대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과의 협업을 통해 전주페스타를 더욱 트렌디한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전주페스타 2023'에서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종남문광장에서 인기 캐릭터인 '벨리곰'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 방문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다.

장재훈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전주페스타는 10월 한 달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쿠키런 콜라보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면서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페스타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일본 가나자와시의회, 우호 교류 협력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내달 2~4일 전주 방문

전주시의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우호 교류 협력이 나선다.

지난 2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다카무라 요시노부(高村 佳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은 내달 2~4일 전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내달 2일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등 우리 측 의원들과의 환담을 갖고, 전주한지 산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방문 둘째 날인 내달 3일에는 팔복 예술공장 방문과 각종 전통문화체험 시설 방문을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축제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인 양 지역의 시의회는 지난 2004년 우호협력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전통 문화와 지방의회 운영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효자4동 이두성카센터, 성금 300만원 기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이두성카센터(대표 이두성)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성금 금삼백만원을 효자4동주민센터에 기탁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웃사랑 나눔 성금은 오는 11월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 및 관내 저소득 세대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효자4동 동네복지허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두성 대표는 "효자4동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네복지 활성화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공헌 활동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숙희 효자4동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두성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성금을 기탁 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받아, 관내 주



민에 파스함이 전달될 수 있게 마음을 담은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0월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광견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 권장된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완료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 동물병원은 38곳으로,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확인한 후 접종 희망 동물병원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단, 올해 하반기 준비된 백신은 2000마리 분량이어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비는 평균 2만5000원 내외이지만 사업 기간 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약 5000원 정도의 접종시술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07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의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사람의 경우 주로 개에게 물려 감염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면서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전주시는 지난 2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시 인권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류은숙 인권활동가(인권연구소 참 대표)와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옥주 교수는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과 전망,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며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제9대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